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난 사역 동사 연구
- get, have, help, let, make를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양 현 민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난 사역 구문 연구

- get, have, help, let, make를 중심으로 -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양 현 민

인 준 서

양현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 동사와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말뭉치인 ICE-GB(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에서의 사역 동사를 비교 연구한다.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접하게 되는 사역 동사의 다양성은 학습자들의 사역 동사 습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접하는 교과서에서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사역 동사의 형태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5종의 본문과 듣기 대본을 각각 분석하고,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를 구어체와 문어체로 나누어서 교과서와 분석한다. 조사 대상의 사역 동사는 get, have, help, let, make이다. 이 동사들은 Comrie(1985)의 분석에 따르면 분석적 사역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역동사로 쓰이게 되었을 때, 단독으로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비정형절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를 비교하면서, 그 빈도수, 비정형절의 형태 그리고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는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역동사를 접하는지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원어민들의 사역동사의 형태를 연구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인 사역동사의 습득을 돕고, 교육현장에서 사역 동사를 지도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1
-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2

II. 이론적 배경

- 2.1.사역동사의 분류.....4
- 2.2 ICE-GB를 이용한 사역동사 get, have 연구.....6
- 2.3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번역.....7

III.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

- 3.1 연구 대상 및 방법.....9
- 3.2 출판사별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 분석.....10
 - 3.2.1 교과서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절의 형태.....16
 - 3.2.2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18
- 3.3 교과서 듣기 대본 분석.....21
 - 3.3.1 교과서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비정형절의 형태.....23
 - 3.3.2 듣기 대본에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25
- 3.4 교과서 대본과 듣기 대본의 빈도수 분석.....27

IV. ICE-GB 분석

- 4.1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30
- 4.2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절의 형태.....32

4.3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	35
V. 교과서와 ICE-GB의 결과 비교.....	37
VI. 결론 및 제언.....	50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 교과서	9
〈표 2〉 출판사 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동사의 빈도수.....	11
〈표 3〉 출판사 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동사 빈도수.....	11
〈표 4〉 출판사 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동사 빈도수.....	11
〈표 5〉 출판사 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사역 동사 빈도수.....	12
〈표 6〉 출판사 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사역 동사 빈도수.....	12
〈표 7〉 출판사 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사역 동사 빈도수	13
〈표 8〉 금성 출판사 사역동사 빈도수.....	13
〈표 9〉 능률 출판사 사역동사 빈도수.....	14
〈표 10〉 두산동아 출판사 사역동사 빈도수.....	14
〈표 11〉 YBM 시사 출판사 사역동사 빈도수.....	15
〈표 12〉 천재 출판사 사역동사 빈도수.....	15
〈표 13〉 금성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16
〈표 14〉 능률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16
〈표 15〉 두산 동아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16
〈표 16〉 YBM 시사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17
〈표 17〉 천재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17
〈표 18〉 금성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18
〈표 19〉 능률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19
〈표 20〉 두산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19
〈표 21〉 YBM 시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0
〈표 22〉 천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0
〈표 23〉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21
〈표 24〉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21

〈표 25〉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22
〈표 26〉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22
〈표 27〉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22
〈표 28〉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23
〈표 29〉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23
〈표 30〉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24
〈표 31〉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24
〈표 32〉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24
〈표 33〉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5
〈표 34〉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5
〈표 35〉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5
〈표 36〉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6
〈표 37〉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26
〈표 38〉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비교.....	27
〈표 39〉 출판사에 따른 본문과 듣기대본 사역동사별 빈도수 비교.....	28
〈표 40〉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	31
〈표 41〉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32
〈표 42〉 ICE-GB 구어체와 문어체의 사역동사 비교.....	34
〈표 43〉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의 쓰임.....	34
〈표 44〉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의 쓰임.....	35
〈표 45〉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35
〈표 46〉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36
〈표 47〉 출판사별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 비교.....	37
〈표 48〉 출판사별 교과서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	38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역동사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한 번쯤 접하는 동사이다. 사역이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이다.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주체가 있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또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것이 사역 동사의 특징이다. 우리말에서는 사역동사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등이 동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와 달리 영어에서 get, have, help, let, make가 사역동사로 사용되어졌을 때 목적어와 함께 비정형절이 수반되며 만들어진다. 우리말과는 다르게 영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get, have, help, let, make를 사역동사로서 학습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얼마나 많은 빈도수의 get, have, help, let, make를 사역동사로서 접하며 다양한 비정형절을 배울 수 있는지, 주어와 목적어와의 관계는 각 동사마다 특징이 있는지 여부를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비교 자료로써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영어 말뭉치인 ICE-GB(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를 이용할 것이다.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와 교과서를 비교하여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사역동사의 형태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사역동사로서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get, have, help, let, make를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이 동사는 Comrie(1985)의 분류에 따르면 분석적 사역에 해당하는데, 동사와 비정형절이 함께 쓰여 의미를 완성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동사이다. 비정형절로는 동사의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동사의

원형, to 부정사, 현재분사와 과거분사가 나타날 수 있고, 동사에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를 갖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각 출판사 별로 포함하고 있는 사역동사의 빈도수, 비정형절의 형태, 그리고 사역동사에 쓰인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는 하나의 출판사를 선택하여 3년 동안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다루거나 학년별로 다른 출판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최소 하나의 출판사에서 최대 세 개의 출판사를 고등학교에서 다룬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이 교과서를 통하여 얼마나 다양한 사역동사의 형태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역동사를 배울 수 있는지, 그 사역동사와 함께 쓰이는 비정형절의 다양성을 알아보고 사역동사와 함께 쓰이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사역동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둘째,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조사한다. 셋째, 교과서와 ICE-GB에 나온 결과를 비교하고, 넷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한 교과서에서의 사역동사의 편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구성과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사역동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사역동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Comrie(1985)의 이론을 인용할 것이다. ICE-GB에서 사역동사 get과 have에 대하여 연구한 Gilquin(2000)의 연구를 보며 get과 have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를 분석한다. 교과서 본문과 듣기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 비정형절의 형태,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를 문어체와 구어체를 나누어서 살펴본다. 제 5장은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교과서 분석 대상이 5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교과서를 분석하였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둘째, ICE-GB는 영국 영어로 만들어진 코퍼스이다. 미국 영어로 만들어진 코퍼스와 비교하였을 때 연구 결과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역동사를 get, have, help, let, make라고 제한하여 조사하였지만, 사역동사의 범위를 달리 하여 조사한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사역동사로는 크게 have, get, make, let을 꼽을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역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비정형절의 형태를 문법적인 규칙으로 정해 놓고 배우고 있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사역동사 have, get, make, let 등이 구체적으로 쓸 수 사역동사로 분류가 되고, 각각 사역의 의미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역동사의 분류는 Comrie(1985)의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Comrie(1985)는 세 범주로 사역동사를 나누고 있다. Comrie(1985)의 분류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역동사로 배우는 동사들과 그 동안 사역의 의미로 쓰이지 않았던 동사에 대하여 재조명이 가능하다.

2.1. 사역동사의 분류

Comrie(1985)는 사역구문을 어휘적 사역 구문(lexical causatives), 어형적 사역 구문(morphological causatives) 그리고 분석적 사역 구문(analytic causatives)로 크게 나누었다.

다음은 Comrie(1985)의 사역 동사의 분류를 조혜진(2007)이 정리한 것이다.

가. 어휘적 사역(lexical causatives)

어휘적 사역구문은 직접적인 사역의 의미를 갖는 구문이다. 동사 자체에 사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즉, 어휘 안에 있는 의미 분석을 통해서 사역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동사의 예로는 burn, sell, roll, break, float, open, close, split, empty, melt, raise, stop, lay, kill, destroy, demolish, bounce, bend, warm, move, shine 등을 들 수 있다.

(1) a. When they **destroy** the web, they **destroy** themselves.

b. It **killed** about 200,000 people in Thailand, Indonesi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Indian Ocean.

나. 어형적 사역(morphological causatives)

어형적 사역구문은 명사나 형용사에 en-, -en, -ify, -ize, -ate 등의 접사가 붙어 동사를 형성하면서 사역의 의미가 되는 것이다. 사역의 의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접사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형적 사역동사의 예는 invalidate, liberate, endate, soften, lighten, justify, purify, harmonize 등이 있다.

(2) a. That still doesn't justify it, Jinho.

b. It serves to harmonize all four sounds.

다. 분석적 사역(analytic causatives)

분석적 사역 구문은 전통문법에서 사역동사로 일컬어지는 make, let, have,

get, help, cause to 등의 동사를 말한다. 분석적 사역구문은 어휘적 사역구문이나 어형적 사역구문에서처럼 단일 동사나 접사의 결합만으로는 사역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비정형절의 도움이 필요한 동사이다.

- (3) a. Now a bus can let any passengers get on and off easily.
- b. I found that extra food made me feel slow and heavy.

2.2. ICE-GB를 이용한 사역동사 have, get의 연구 - Gilquin(2003)

사역동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사역동사가 들어간 구문에 대한 연구, 특정 사역동사의 쓰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영어 외의 다른 언어의 사역동사 연구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 중에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ICE-GB를 갖고 진행된 선행연구는 Gilquin(2000)의 연구이다. Gilquin(2000)은 사역의 의미로 사용된 get과 have의 사용 빈도수, 자주 사용되는 비정형절 동사의 형태를 영국 언어 말뭉치인 ICE-GB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Gilquin(2000)은 ICE-GB의 구어와 문어자료를 나누어서 get과 have의 사용 빈도수를 분석한 결과 get이 구어에서 have보다 많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문어에서는 have를 사역의 의미로 get보다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get과 have의 비정형절 동사를 분석한 결과 get은 to 부정사(42.6%)와 과거분사(36.6%)의 형태가 자주 쓰였지만 현재분사(20.8%)는 적게 쓰였다. have의 경우는 과거분사를 쓰는 빈도수가 71.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재

분사는 15.6%, to 부정사는 1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Gilquin(2000)은 이 논문에서 get과 have가 사역동사로서의 쓰임이 다른데 문법에서는 서로 교환하여 쓸 수 있다고 잘 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3.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사역 동사를 살펴보면 무생물 주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문장을 종종 볼 수 있다. 무생물 주어를 갖고 있는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 할 때, 어색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영옥(2001)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9) The letter writing helps to make the organization work.

?편지쓰기가 그 기구가 제대로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편지를 쓰면 그 기구가 제대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The humiliation made me shudder.

?수치심이 나를 부르르 떨게 하였다.

나는 수치심으로 부르르 떨었다.

위의 영어 예문에서 무생물이 주어로 사용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어색한 부분을 이영옥(2001)은 지적을 하고 있다. 저자는 Kemmer(2001:808)의 연구에서 make 사역구문의 경우에는 무생물주어가 생물주어보다 출현빈도가 높다는 보고를 밝히며, 감정 동사나 사역의 의미를 갖는 타

동사 등은 무생물 주어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역동사 get, have, help, let, make 역시 사역 구문으로써 무생물 주어와 생물 주어의 쓰임의 비율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영옥(2001)이 번역에 있어서 무생물 주어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면, 반대로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꿀 때 어떤 동사는 무생물 주어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것을 원어민들의 언어 자료인 ICE-GB에서 그 비율을 알아보고 교과서와 비교를 할 것이다.

즉, 이영옥(2001)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하는 사역동사 get, have, help, let이 어떠한 주어와 목적어를 갖는지 조사하여 각각의 사역동사가 어떠한 주어와 목적어를 갖는지 분석할 수 있다.

위의 연구는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동사 문장에서, 영어 교사로서 주어와 목적어에 따라서 어떠한 사역동사를 고려해야 하는지 시사하고 있다.

Ⅲ.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

3.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2학년 영어I, 3학년 영어II의 5종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다음 표는 조사할 교과서 출판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조사 대상 교과서

	출판사	저자
1	금성출판사	권오량 외
2	능률출판사	이찬승 외
3	두산동아	김성곤 외
4	YBM 시사	신정현 외
5	천재출판사	김재영 외

위의 출판사 별로 각 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먼저 조사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학년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비정형질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위의 출판사들은 학년 별로 본문과 듣기 대본을 각각 분석하여 ICE-GB와 비교 분석할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위의 5종 교과서의 각 단원별 읽기 본문과 듣기 대본을 추출하여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다.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 인코딩 값은 utf-8으로 설정하였다. 그 텍스트 파일을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AntConc 3.2.1로 특정 사역동사를 찾아 쓰임의 빈도와 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때 언어

분석 프로그램 AntConc 3.2.1의 언어 인코딩 값은 텍스트 파일과 같은 utf-8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3.2 출판사별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 분석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Comrie(1985)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사역동사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동사인 get, have, help, let, make를 사역동사로 선정하였다. 이 동사들은 홀로 쓰이면서 사역의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비정형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Comrie(1985)는 그러한 사역동사를 대부분 분석적 사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어형적 사역과 어휘적 사역은 타동사로서 목적어만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출판사별 고등학교 1,2,3학년 교과서에 나타난 get, have, help, let, make 동사의 쓰임을 나타내보았다. 이는 사역동사로서의 쓰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동사의 쓰임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안의 숫자는 백만 단위로 환산을 한 수치이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백만 단위로 환산을 하는 것은 교과서 별로 자료의 크기가 다르고, 또한 ICE-GB의 구어체와 문어체 자료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기 위하여 하나의 수치로 맞추는 것이다.

<표 2> 출판사 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본문 동사의 빈도수

	get	have	let	make	help
금성(권)	37 (5203)	62 (8719)	4 (563)	13 (1828)	5 (703)
능률(이)	19 (2102)	124 (13721)	8 (885)	29 (3209)	19 (2102)
두산(김)	14 (1637)	62 (7249)	4 (468)	25 (2923)	17 (1988)
시사	21 (2459)	98 (11475)	6 (703)	29 (3396)	7 (820)
천재(김)	14 (2232)	70 (11161)	9 (1435)	39 (6218)	11 (1754)

전체적인 출판사에서 have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 출판사의 경우 have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동사는 get이 되겠다. 반면에 능률 출판사와 두산 출판사, YBM 시사, 천재 출판사는 make가 두 번째로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쓰임이 적은 동사는 모든 교과서를 통틀어서 let으로 나타났다.

<표 3> 출판사 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본문 동사 빈도수

	get	have	let	make	help
금성(권)	28 (2664)	107 (10180)	6 (571)	30 (2854)	10 (951)
능률(이)	14 (1550)	91 (10074)	1 (111)	40 (4428)	19 (2103)
두산(김)	25 (3010)	82 (9874)	9 (1084)	19 (2288)	6 (723)
시사	26 (2752)	99 (10480)	10 (1059)	36 (3811)	6 (635)
천재(김)	22 (2831)	81 (10423)	9 (1158)	28 (3603)	9 (1158)

2학년 교과서에서는 1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have가 동사로서의 쓰임이 가장 많았다. 두산 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는 have 다음으로 make가 가장 많이 쓰였으며, 두산 출판사만 get이 빈번히 쓰이고 있었다. let은 금성 출판사, 능률출판사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고 있고, help의 경우는 두산동아 출판사와 YBM 시사에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출판사 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본문 동사 빈도수

	get	have	let	make	help
금성(권)	34 (3500)	74 (7617)	4 (412)	45 (4632)	21 (2162)
능률(이)	16 (1713)	91 (9743)	6 (642)	37 (3961)	9 (964)

두산(김)	24 (2570)	118 (12637)	5 (535)	33 (3534)	10 (1071)
시사	11 (1251)	99 (11262)	6 (683)	33 (3754)	16 (1820)
천재(김)	14 (1757)	83 (10419)	7 (879)	24 (3013)	12 (1506)

3학년 교과서에서는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have가 동사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모든 출판사에서 have 다음으로 많이 쓰인 동사는 make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적게 쓰인 동사는 let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학년 별로 나눈 사역동사의 빈도수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변환하였을 때의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백만 단어로 환산한 숫자는 소수 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표 5> 출판사 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본문 사역 동사 빈도수

	get	have	help	let	make
금성(권)	0	0	1 (140)	2 (281)	4 (563)
능률(이)	1 (111)	5 (553)	7 (775)	0	7 (775)
두산(김)	1 (117)	0	5 (585)	2 (234)	12 (1403)
시사	0	2 (234)	1 (117)	5 (585)	4 (468)
천재(김)	0	0	5 (797)	4 (638)	21 (3348)

<표 6> 출판사 별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본문 사역 동사 빈도수

	get	have	help	let	make
금성(권)	0	1 (95)	3 (285)	5 (476)	11 (1047)
능률(이)	0	1 (111)	6 (664)	1 (111)	12 (1328)
두산(김)	1 (120)	2 (241)	2 (241)	3 (361)	8 (963)
시사	1 (106)	0	2 (212)	5 (529)	4 (423)
천재(김)	0	1 (129)	3 (386)	5 (643)	11 (1416)

<표 7> 출판사 별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본문 사역 동사 빈도수

	get	have	help	let	make
금성(권)	0	1 (103)	7 (721)	4 (412)	11 (1132)
능률(이)	4 (428)	1 (107)	3 (321)	5 (535)	10 (1071)
두산(김)	0	1 (107)	2 (214)	5 (535)	11 (1178)
시사	1 (114)	2 (228)	2 (228)	5 (569)	6 (683)
천재(김)	0	0	0	6 (779)	5 (909)

위의 표를 비추어 보았을 때, 고등학교 1,2,3학년 교과서를 통틀어서 make가 사역동사로써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help나 let의 순서였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는 help가 let보다 더 많이 쓰였고, 2학년 교과서에는 let이 help보다 조금 더 많이 쓰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서는 let이 help보다 훨씬 더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get이나 have의 경우 동사로서의 쓰임이 많았지만 사역동사로서는 help, let, make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음 표는 출판사 별로 1,2,3학년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표 8> 금성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빈도수

금성(권)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1 (140)	2 (281)	4 (563)
2학년	0	1 (95)	3 (285)	5 (476)	11 (1047)
3학년	0	1 (103)	7 (721)	4 (412)	11 (1132)
합계	0	2 (198)	11 (1146)	11 (1169)	26 (2742)

금성 출판사의 경우 1, 2, 3학년을 통틀어서 get이 사역동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다. have의 경우 1학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학년과 3학년 교과서 본문에는 등장하였다. help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let은 많은 빈도수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학년 별로 나오고 있

었고, make는 사역 동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표 9> 능률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빈도수

능률(이)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1 (111)	5 (553)	7 (775)	0	7 (775)
2학년	0	1 (111)	6 (664)	1 (111)	12 (1328)
3학년	4 (428)	1 (107)	3 (321)	5 (535)	10 (1071)
합계	5 (539)	7 (771)	16 (1760)	6 (646)	29 (3174)

능률출판사는 2학년 교과서 본문에서 get이 사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다. have의 경우 1학년 교과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2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서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 help 역시 have와 마찬가지로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let은 1학년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2학년과 3학년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make는 전 학년을 통틀어서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두산동아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빈도수

두산(김)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1 (117)	0	5 (585)	2 (234)	12 (1403)
2학년	1 (120)	2 (241)	2 (241)	3 (361)	8 (963)
3학년	0	1 (107)	2 (214)	5 (535)	11 (1178)
합계	2 (237)	3 (348)	9 (1040)	10 (1130)	31 (3544)

두산동아의 경우에는 get이 3학년 교과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have는 1학년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았고, help는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let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make는 1학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학년 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표 11> YBM 시사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빈도수

시사(신)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2 (234)	1 (117)	5 (585)	4 (468)
2학년	1 (106)	0	2 (212)	5 (529)	4 (423)
3학년	1 (114)	2 (228)	2 (228)	5 (569)	6 (683)
합계	2 (220)	4 (462)	5 (557)	15 (1683)	14 (1574)

시사 출판사는 get과 have가 각각 1학년과 2학년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help의 경우는 적은 빈도수이지만 1,2,3학년을 모두 통틀어서 등장하고 있고, let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make는 타 교과서보다는 적은 비율로 등장하지만 전 학년을 통틀어서 꾸준히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표 12> 천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빈도수

천재(김)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5 (797)	4 (638)	21 (3348)	
2학년	0	1 (129)	3 (386)	5 (643)	11 (1416)	
3학년	0	0	0	6 (779)	5 (909)	
합계	0	1	8	15	37	61

마지막으로 천재출판사 (김)의 경우에는 get이 사역동사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ave의 경우에는 2학년 교과서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고, help는 3학년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let은 전 학년 빈번히 출현하고 있었고, make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현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사역 동사의 출현 비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타 출판사와는 다른 결과이다.

3.2.1 교과서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질의 형태

앞에서 Comrie(1985)는 분석적 사역에 해당하는 get, have, help, let, make 는 비정형질이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표는 출판사 별로 등장하는 사역동사의 비정형질의 형태를 조사한 것이다. 교과서 본문의 비정형질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의 숫자이다.

<표 13> 금성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질 빈도수

금성출판사(권)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2 (73)	0	0	0
help	10 (363)	0	0	1 (36)	0	0
let	11 (399)	0	0	0	0	0
make	10 (363)	0	0	0	1 (36)	15 (545)

<표 14> 능률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질 빈도수

능률출판사(이)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6)	4 (144)	0	0
have	1 (36)	0	6 (216)	0	0	0
help	14 (505)	0	0	2 (72)	0	0
let	6 (216)	0	0	0	0	0
make	2 (72)	0	1 (36)	0	5 (181)	18 (650)

<표 15> 두산 동아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질 빈도수

두산동아(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2 (76)	0	0
have	3 (114)	0	0	0	0	0
help	9 (341)	0	0	0	0	0
let	10 (378)	0	0	0	0	0
make	13 (492)	0	0	0	2 (76)	16 (606)

<표 16> YBM 시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YBM시사(신)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7)	1 (37)	0	0
have	2 (74)	1 (37)	1 (37)	0	0	0
help	5 (186)	0	0	0	0	0
let	15 (558)	0	0	0	0	0
make	4 (149)	0	1 (37)	0	1 (37)	8 (297)

<표 17> 천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천재출판사(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1 (45)	0	0	0
help	6 (272)	0	0	2 (91)	0	0
let	15 (679)	0	0	0	0	0
make	9 (408)	0	0	0	6 (272)	23(1042)

위의 표를 보면 전체적인 출판사에서 동사원형이 비정형절로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동사별로 살펴보면 get의 경우는 과거분사와 to 부정사가 주로 비정형절로 쓰였다. have는 과거분사가 많이 쓰이고, 동사원형도 쓰였으며 YBM시사 출판사에서는 현재분사가 등장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help의 경우에는 동사원형이 비정형절로 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to 부정사의 쓰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성출판사와 능률출판사에서만 help의 비정형절로 to부정사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let은 동사원형이 모두 비정형절로 쓰였다.

make의 경우는 가장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절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make의 비정형절로서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동사원형, 명사, 형

용사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능률출판사와 YBM시사 출판사에서는 make의 목적보어로 과거분사가 각각 한번 씩 등장하였다.

5가지 출판사를 분류한 결과 사역동사의 목적격보어가 가장 다양하게 등장한 출판사는 YBM시사출판사였다. 능률출판사(이)도 나머지 세 출판사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2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

이영옥(2001)은 Kemmer (2001:808)의 연구에서 make 사역구문의 경우에는 무생물주어가 생물주어보다 출현빈도가 높다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Make 사역구문에서는 주어가 무생물인 경우가 많았고, 목적어는 생물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조사한 get, have, help, let, make가 사역으로 쓰인 경우, 어떠한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금성출판사 본문에 나타나는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위로 환산한 수이다.

<표 18> 금성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0	0	0	0
have	0	1 (36)	0	1 (36)
help	3 (109)	0	6 (218)	2 (73)

let	3 (109)	5(182)	1 (36)	0
make	0	3(109)	8 (291)	15 (545)

금성 출판사의 경우 get과 have는 빈도수가 없거나 많이 나온 편이 아니며 비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have는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과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함께 한번 씩 등장하였다. help는 상대적으로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이 나왔다. let은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make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빈도수가 컸다.

<표 19> 능률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4 (144)	0	0	1 (36)
have	2 (72)	5 (181)	0	0
help	2 (72)	0	13 (469)	1 (36)
let	2 (72)	3 (108)	1 (36)	0
make	1 (36)	9 (325)	9 (325)	10 (361)

능률출판사의 경우, get은 생물 주어- 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았고, have는 생물주어- 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았다. help는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빈번히 출현하였다. let은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make는 무생물 주어- 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다.

<표 20> 두산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1 (38)	0	1 (38)	0
have	0	0	1 (38)	2 (76)
help	2 (76)	0	5 (189)	2 (76)
let	6 (227)	2 (76)	2 (76)	0
make	5 (189)	4 (151)	12 (454)	10 (378)

두산 출판사의 경우 g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 한번,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도 한번 쓰였고 have의 경우는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2번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help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금성 출판사와 능률 출판사와 같이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의 구문이 가장 많았다. l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make는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빈번히 나타났다.

<표 21> YBM 시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1 (37)	0	0	1 (37)
have	2 (74)	2 (74)	0	0
help	1 (37)	1 (37)	3 (112)	0
let	13 (483)	2 (74)	0	0
make	3 (112)	2 (74)	1 (37)	8 (297)

<표 22> 천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0	0	0	0
have	0	1 (45)	0	0
help	3 (135)	1 (45)	4 (181)	0
let	12 (544)	1 (45)	1 (45)	1 (45)
make	5 (226)	7 (317)	7 (317)	18 (815)

시사 출판사와 천재 출판사의 경우에는 help는 두 출판사 역시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이 출현하였고, l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많았다. make는 두 출판사 모두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다.

교과서 본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g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have는 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자주 쓰였다. help는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모든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많이 쓰였지만, 금성 출판사와 능률 출판사에서는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이 쓰였다. make는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가 많이 쓰였고, 두산 출판사만이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3.3 교과서 듣기 대본 분석

위에서 분석한 총 5종의 출판사의 듣기 대본을 분석하여 구어체에서 쓰인 사역동사를 조사하고, 앞에서 조사했던 본문에 쓰인 사역동사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는 각 출판사 별로 학년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위로 환산한 수치이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표 23>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금성(권)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8 (727)	10 (909)	5 (455)	
2학년	0	0	6 (606)	9 (909)	7 (707)	
3학년	0	0	3 (270)	8 (720)	10 (900)	
합계	0	0	17 (531)	27 (844)	22 (687)	66 (2062)

<표 24>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능률(이)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0	2 (411)	3 (616)	

2학년	0	0	3 (381)	6 (761)	8 (1015)	
3학년	1 (106)	1 (106)	10 (1055)	3 (317)	10 (1055)	
합계	1 (45)	1 (45)	13 (585)	11 (495)	21 (945)	47 (2114)

<표 25>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두산(김)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5 (781)	1 (156)	1 (156)	
2학년	1 (113)	0	2 (225)	0	3 (338)	
3학년	0	0	1 (115)	5 (577)	5 (577)	
합계	1 (42)	0	8 (334)	6 (251)	9 (376)	24 (1002)

<표 26>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시사(신)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0	5 (1056)	4 (845)	
2학년	1 (146)	1 (146)	0	2 (292)	6 (875)	
3학년	0	2 (240)	0	4 (479)	2 (240)	
합계	1 (50)	3 (150)	0	11 (552)	12 (602)	27 (1354)

<표 27>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천재(김)	get	have	help	let	make	
1학년	0	0	2 (372)	7 (1302)	6 (1116)	
2학년	0	0	8 (837)	14 (1465)	8 (837)	
3학년	1 (88)	0	4 (353)	10 (883)	13 (1149)	
합계	1 (38)	0	14 (533)	31 (1181)	27 (1028)	73 (2781)

총 합계에서는 천재 출판사가 가장 많은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낸 출판사는 두산 출판사였다. 각 동사별로 보면 금성 출판사의 경우 let이 사역 동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get과 have는 사역동사로 쓰이지 않았다. 능률 출판사는 get과 have가 3학년 교과서에서만 한번 씩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make가 가장 많이 사역동사로 쓰였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동사는 help이고, 그 다음은 let이 많이 나왔

다. 두산 출판사에서는 have가 사역동사로 나오지 않았다. make가 가장 많이 사역 동사로 쓰였다. get은 2학년 교과서에서만 사역동사로 나타났다. YBM 시사 출판사는 make가 사역 동사로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get과 have가 타 출판사에 비하여 사역 동사로 가장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help의 경우 사역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 천재 출판사는 let이 가장 많이 사역동사로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합계에서 천재 출판사가 가장 많은 사역동사를 갖고 있었다. have는 사역동사로 출현하지 않았다.

3.3.1 교과서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비정형질의 형태

듣기 대본에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비정형질 동사를 분석한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의 숫자이다.

<표 28>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질 빈도수

금성(권)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0	0	0	0
help	15 (469)	0	0	2 (62)	0	0
let	27 (844)	0	0	0	0	0
make	13 (406)	0	0	0	0	9 (281)

<표 29>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질 빈도수

능률출판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45)	0	0	0
have	1 (45)	0	0	0	0	0
help	12 (540)	0	0	1 (45)	0	0
let	11 (495)	0	0	0	0	0
make	12 (540)	0	2 (90)	0	0	7 (315)

<표 30>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두산동아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1 (42)	0	0	0	0
have	0	0	0	0	0	0
help	8 (334)	0	0	0	0	0
let	6 (251)	0	0	0	0	0
make	4 (167)	0	0	0	1 (42)	4 (167)

<표 31>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시사출판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1 (50)	0	0
have	3 (150)	0	0	0	0	0
help	0	0	0	0	0	0
let	11 (552)	0	0	0	0	0
make	6 (301)	0	1 (50)	0	0	5 (251)

<표 32>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천재출판사(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8)	0	0	0
have	0	0	0	0	0	0
help	13 (495)	0	0	1 (38)	0	0
let	31(1180)	0	0	0	0	0
make	10(381)	0	0	0	0	17 (648)

전체적으로 동사원형이 비정형절로 쓰인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make의 경우는 동사 원형과 형용사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 능률출판사와 YBM시사에서 make의 비정형절로서 과거분사가 쓰이기도 하였다. help는 동사원형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to 부정사가 비정형절로 나오는 경우는 듣기 대본에서는 동사원형보다 그 빈도수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먼저 교과서 본문에서 조사하였던 help의 비정형절 빈도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3.2 듣기 대본에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

듣기 대본에서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위에서 분석한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빈도수와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출판사별로 듣기 대본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빈도수이다.

<표 33>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0	0
have	0	0	0	0
help	11 (344)	0	5 (156)	1 (31)
let	26 (812)	1 (31)	0	0
make	3 (94)	1 (31)	15 (469)	3 (94)

<표 34>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45)	0	0	0
have	0	1 (45)	0	0
help	9 (405)	0	4 (180)	0
let	11 (495)	0	0	0
make	3 (135)	7 (315)	8 (360)	3 (135)

<표 35>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1 (42)	0
have	0	0	0	0
help	6 (251)	0	2 (84)	0

let	6 (251)	0	0	0
make	3 (125)	0	5 (209)	1 (42)

<표 36>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50)	0	0	0
have	3 (150)	0	0	0
help	0	0	0	0
let	11 (552)	0	0	0
make	2 (100)	0	9 (451)	1 (50)

<표 37>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1 (38)	0	0
have	0	0	0	0
help	8 (305)	0	6 (228)	0
let	30 (1143)	0	1 (38)	0
make	8 (305)	2 (76)	13 (495)	4 (152)

듣기 대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get의 경우는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의 관계가 빈번히 나타났다. have는 능률 출판사와 시사 출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출판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능률 출판사에서는 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가 나타났고, 시사 출판사에서는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나타났다. help의 경우에는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l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았고, make는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을 비교하여 보면, get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두 자료 모두 빈번하게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have는 듣기 대본에서는 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와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만이 등장하였고, 교

과서 본문의 경우 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빈번하였다. help는 교과서 본문에서는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듣기 대본에서는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이 사용되었다. let은 두 자료 모두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가 가장 많이 쓰였다. make는 교과서 본문에서는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가 가장 빈번하였고, 듣기 대본에서는 무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빈번하였다.

3.4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의 빈도수 분석

이 장에서는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의 빈도수만을 분석한다. 비정형절과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는 제 5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위의 5종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전체적으로 나타내 보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의 빈도수이다.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표 38>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 사역동사 빈도수 비교

출판사	교과서 본문	듣기 대본
금성출판사	50 (1816)	66 (2062)
능률출판사	63 (2275)	47 (2114)
두산동아	55 (2082)	24 (1002)
YBM 시사	40 (1487)	27 (1354)
천재출판사	61 (2763)	73 (2781)

위의 표를 보면 백만 단어로 전환하였을 때, 교과서 본문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난 출판사는 천재출판사였다. 듣기 대본의 경우도 천재출판사

가 가장 많은 사역동사를 나타냈다.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을 비교해 보면 교과서 본문에 사역동사 더 많은 출판사는 능률 출판사, 두산 동아, YBM 시사였다. 듣기 대본에 더 많은 사역동사가 있는 출판사는 금성출판사와 천재출판사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각 출판사별로 본문과 듣기대본에 나타난 각각의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9> 출판사에 따른 본문과 듣기대본 사역동사별 빈도수 비교

	get		have		help		let		make	
	본문	듣기	본문	듣기	본문	듣기	본문	듣기	본문	듣기
금성	0	0	2 (73)	0	11 (399)	17 (531)	11 (399)	27 (844)	26 (944)	22 (687)
능률	5 (180)	1 (45)	7 (253)	1 (45)	16 (578)	13 (585)	6 (217)	11 (495)	29 (1047)	21 (945)
두산	2 (76)	1 (42)	3 (114)	0	9 (341)	8 (334)	10 (378)	6 (251)	31 (1173)	9 (376)
시사	2 (74)	1 (50)	4 (149)	3 (150)	5 (186)	0	15 (558)	11 (552)	14 (521)	12 (602)
천재	0	1 (38)	1 (45)	0	8 (362)	14 (533)	15 (679)	31 (1181)	37 (1676)	27 (1028)

동사별로 비교를 해 보면 get은 금성 출판사와 천재 출판사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듣기의 경우 금성 출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한 번씩 나왔다. 본문에서는 능률 출판사가 180번으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고 듣기의 경우에는 시사 출판사가 50번으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have가 교과서 본문에서 사역으로 쓰인 경우는 능률 출판사가 253번으로 가장 많이 쓰였다. 듣기 대본의 경우에는 능률 출판사와 YBM 시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

판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help는 본문에서의 쓰임은 능률 출판사가 가장 많았다. 듣기 대본의 경우 YBM 시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고, 본문과 마찬가지로 듣기 대본에서도 능률 출판사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let의 경우 본문과 듣기 모두 천재 출판사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let은 비교적 많은 수가 교과서 본문과 듣기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ake는 교과서 본문과 듣기 대본 모두 let과 마찬가지로 천재 출판사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make 역시 사역동사로 모든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IV. ICE-GB 분석

4.1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

ICE-GB는 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로써 백만 단어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언어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문과 글로 쓰인 언어 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ICE-GB의 자료는 구어체와 문어체를 나누어서 조사할 수 있고, 성별, 학력, 나이 등을 나누어서 언어 자료를 조사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전체 1,061,263개의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구어체는 637,682개, 문어체는 423,581개의 단어를 갖고 있다.

이 장에서는 ICE-GB에서 나타나는 사역동사 get, have, help, let, make 빈도수, 비정형질의 쓰임과 주어와 목적어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에서도 본문과 듣기를 나누어서 조사하였듯이, ICE-GB의 자료 역시 구어체와 문어체를 나누어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ICE-GB에서 각각의 동사가 사역동사로 쓰인 예를 찾기 위하여 검색 조건을 설정하였다. 검색을 하기 위해서 ICE-GB 프로그램의 'TEXT' 아이콘을 이용하였다.

'사역동사 (space) <NPHD> (space) <MVB>' 로 설정을 하였다. ICE-GB에서의 NPHD는 'Noun Phrase Head'이고 MVB는 'Main Verb'를 나타낸다. 이렇게 설정하여 찾은 데이터는 비정형절 동사가 to 부정사를 제외한 모든 형태를 찾게 된다. 따라서 to 부정사가 비정형절로 쓰인 예를 찾기 위

해서 '사역동사 (space) <NPHD> (space) <TO> (space) <MVB>' 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비정형절이 형용사로 쓰인 예를 찾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동사 외에도 형용사나 명사를 비 정형절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역동사 (space) <NPHD> (space) <AJHD>'로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형용사 비정형절을 찾고, '사역동사 (space) <NPHD> (space) <NPHD>'로 명사로 이루어진 비정형절을 찾기 위한 검색조건을 설정하였다.

위의 검색조건으로 찾은 자료를 저장하여 txt 파일로 저장하고 인코딩 값은 utf-8으로 설정하였다. 그 후에 AntConc 3.2.1를 이용하여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사역으로 쓰인 것만 다시 분류하여 통계를 내었다.

다음은 각 사역동사별 위의 조건으로 찾은 각 사역동사의 전체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0〉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

동사	빈도수
get	84
have	62
help	53
let	156
make	197

전체 코퍼스에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보면 make가 사역으로 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help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4.2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 비정형절의 형태

각 사역동사별 비정형절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다음 표는 각 사역동사별 비정형절의 형태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동사	동사원형	과거분사	현재분사	to 부정사	형용사	명사
get	1	23	16	36	8	0
have	9	34	15	2	2	0
help	29	0	1	23	0	0
let	155	0	0	0	1	0
make	91	0	0	0	101	5

get은 to 부정사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였다. 반면에 동사원형의 형태는 한번 나타났다. 다음은 get이 사역동사로 쓰일 때, 비정형절 동사로서 동사원형이 나타나는 예이다.

(9) <ICE-GB:S1B-005 #126:1:A> So as long as you 've got unrestricted competition you 've got you tell me

have의 경우 과거분사의 형태가 가장 많이 쓰였고, 현재분사의 형태는 그 다음으로 자주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get에 1번 나온 동사원형의 형태는 9번 쓰였으며 to 부정사는 2번만 출현함으로써 다른 형태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다음은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면서 to 부정사를 비정형절 동사로 갖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10) <ICE-GB:S2A-010 #069:1:A> We should say of course that uh England have Argentina to face on Saturday having already faced and beaten the Soviet Union

(11) <ICE-GB:W2C-004 #075:3> If they don't support the club now they will only have themselves to blame in the future, said Hall.

help가 사역동사로 쓰인 경우 동사원형이 비정형절 동사로 29번 쓰였고, to 부정사가 23번 쓰이면서 두 가지 비정형절 동사의 쓰임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현재분사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아래 그 예를 나타냈다.

(12) <ICE-GB:S2A-067 #144:1:A> ... uh because uh of <,> a pain in his back uh was uh sitting uhm on the fork lift truck a and was not uhm uh uhm engaged in helping him doing the lifting <,>

let의 경우는 155번 비정형절 동사가 동사의 원형이었고, 한번 형용사의 형태가 나타났다. 다음은 형용사가 비정형절에 나타난 예이다.

(13) <ICE-GB : W2f-012 #019:1> Eventually it was waved through, the final red-and white barrier rising to let it past, and then it was Schumacher's turn.

make는 let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형태의 비정형절은 모두 동사 원형이었다. 하지만 make의 비정형절이 형용사가 오는 빈도수가 101번으로 동사 91번 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명사가 비정형절에 오는 경우는

5번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구어(spoken)와 문어(written)에서의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동사별로 나누어보았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환산을 한 숫자이다.

<표 42> ICE-GB 구어체와 문어체의 사역동사 비교

동사	구어체	문어체
get	76 (119)	8 (19)
have	48 (75)	14 (33)
help	26 (41)	27 (64)
let	84 (132)	73 (172)
make	125 (196)	72 (170)

구어체에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동사는 get, have, make였다. help와 let은 문어체에서 쓰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는 구어체와 문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 동사의 쓰임을 비교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43>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의 쓰임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형용사	명사
get	1 (2)	16 (25)	23 (36)	29 (45)	7 (11)	0
have	5 (8)	15 (24)	28 (44)	1 (2)	2 (3)	0
help	11 (17)	1 (2)	0	14 (22)	0	0
let	84 (132)	0	0	0	0	0
make	64 (100)	0	0	0	61 (96)	0

<표 44>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질의 쓰임

	동사원형	과거분사	현재분사	to 부정사	형용사	명사
get	0	0	0	7(17)	1(2)	0
have	2(5)	8(19)	0	1(2)	0	0
help	17(40)	0	0	10(24)	0	0
let	72(170)	0	0	0	1(2)	0
make	27(64)	0	0	0	40(94)	5(12)

위의 표를 보면 문어체 보다 구어체에서 get과 have의 비정형질이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help의 경우 거의 대부분 원형과 to 부정사만이 쓰였음을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let은 구어체, 문어체 모두에서 동사 원형으로만 사용되었지만 문어체에서 let이 형용사로 한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make는 구어체에서는 동사원형과 형용사의 쓰임이 각각 100번, 96번으로 비슷하였고, 문어체에서는 형용사의 쓰임이 더 많았다. 명사는 문어체에서만 나타났다.

4.3 ICE-GB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분석

다음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다음 표는 각각의 동사별로 구어체와 문어체에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5>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35 (55)	29 (45)	8 (13)	5 (8)
have	17 (27)	23 (36)	2 (3)	6 (9)
help	5 (8)	0 (0)	18 (28)	3 (5)
let	75 (118)	6 (9)	2 (3)	1 (2)
make	20 (31)	29 (45)	44 (69)	32 (50)

<표 46>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3 (7)	3 (7)	1 (2)	0 (0)
have	6 (14)	4 (9)	2 (5)	2 (5)
help	5 (12)	0 (0)	20 (47)	2 (5)
let	64 (151)	3 (7)	4 (9)	2 (5)
make	14 (33)	9 (21)	23 (54)	31 (73)

get은 문어체 구어체 모두에서 생물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이 쓰이고 있고,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도 쓰임을 알 수 있다. have는 구어체에서는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문어체에서는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help는 무생물주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고,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빈번한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let은 구어체, 문어체 모두 생물 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make는 Kemmer(2001)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make가 구어체에서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가 사용되고 있고, 문어체에서는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교과서와 ICE-GB의 결과 비교

교과서와 ICE-GB에 나타나는 사역동사 get, have, help, let, make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5종 교과서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와 ICE-GB의 빈도수를 백만 단어로 맞추어서 다음 표와 같이 비교를 해 보았다. 이 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표는 앞에서 표를 편의상 반복한다.

먼저 5종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비교해보았다.

다음 표는 출판사 별로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의 숫자가 백만 단어로 환산한 숫자이다.

〈표 47〉 출판사별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사역동사 빈도수 비교

	get	have	help	let	make	합계
금성	0 (0)	2 (73)	11 (399)	11 (399)	26 (944)	50 (1816)
능률	5 (180)	7 (253)	16 (578)	6 (217)	29 (1047)	63 (2275)
두산	2 (76)	3 (114)	9 (341)	10 (378)	31 (1173)	55 (2082)
시사	2 (74)	4 (149)	5 (186)	15 (558)	14 (521)	40 (1487)
천재	0 (0)	1 (45)	8 (362)	15 (679)	37 (1676)	61 (2763)

전체적인 합계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출판사는 천재출판사였다. 백만 단어로 통계를 내기 전에는 63개로 능률출판사가 61개인 천재출판사보다 많았다. 백만 단어로 환산을 했을 때, 능률출판사는 2275개였고, 천재출판사는 2763개로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다음 표는 5종 교과서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와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8> 출판사별 교과서 듣기 대본에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

	get	have	help	let	make	합계
금성	0	0	17 (531)	27 (844)	22 (687)	66 (2062)
능률	1 (45)	1 (45)	13 (585)	11 (495)	21 (945)	47 (2114)
두산	1 (47)	0	8 (334)	6 (251)	9 (376)	24 (1002)
시사	1 (50)	3 (150)	0	11 (552)	12 (602)	27 (1354)
천재	1 (38)	0	14 (533)	31 (1181)	27 (1028)	73 (2781)

get이 사역동사로 쓰인 경우를 보면, 금성 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이것을 백만 단위로 환산을 하면 능률출판사는 45번, 두산출판사는 47번, YBM 시사는 50번, 천재 출판사는 38번으로 나타났다. 백만 단위로 환산을 하였을 때는 시사 출판사가 가장 많은 빈도수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have의 경우에는 능률 출판사가 45번, YBM 시사 출판사가 150번 나타난다. help는 능률 출판사가 585번으로 최다 빈도수를 기록하고 있고, let은 1181번으로 천재 출판사가 가장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make의 쓰임이 가장 많은 출판사는 1028번으로 천재 출판사이다.

전체적인 합계를 보았을 때, 가장 많은 합계를 나타낸 것은 천재출판사였다. 백만 단위로 환산을 하였을 때도 천재 출판사가 가장 많은 빈도수로 나

타났다. 금성출판사는 66번의 빈도수가 나왔지만 47번의 빈도수가 나온 능률출판사와 백만 단위로 환산한 결과, 능률출판사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본문과 듣기에 나온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출판사에 따른 본문과 듣기대본
사역동사별 빈도수 비교

	본문	듣기대본
금성	50 (1816)	66 (2062)
능률	63 (2275)	47 (2114)
두산	55 (2082)	24 (1002)
시사	40 (1487)	27 (1354)
천재	61 (2763)	73 (2781)

본문에 더 많은 사역동사가 나타난 출판사는 능률출판사, 두산출판사, 시사출판사이고, 듣기대본에 더 많은 사역동사가 나타난 출판사는 금성출판사와 천재출판사였다.

다음은 ICE-GB에 나타난 통계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으로 환산한 숫자이다.

〈표 42〉 ICE-GB 구어체와 문어체의 사역동사 비교

동사	구어체	문어체
get	76 (119)	8 (19)
have	48 (75)	14 (33)
help	26 (41)	27 (64)
let	84 (132)	73 (172)
make	125 (196)	72 (170)
합계	359 (563)	194 (458)

합계를 보면 구어체에서의 빈도수가 문어체보다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도 구어체가 563번, 문어체가 458번 나타나면서 구어체에서 사역동사의 쓰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CE-GB가 실제 원어민의 언어 사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구어체에서 사역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의 듣기 대본에서 더 많은 빈도수가 나타난 금성출판사와 천재출판사가 ICE-GB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과서 본문의 비정형절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백만 단어로 환산하였을 때의 숫자이다.

〈표 13〉 금성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금성출판사(권)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2 (73)	0	0	0
help	10 (363)	0	0	1 (36)	0	0
let	11 (399)	0	0	0	0	0
make	10 (363)	0	0	0	1 (36)	15 (545)

〈표 14〉 능률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능률출판사(이)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6)	4 (144)	0	0
have	1 (36)	0	6 (216)	0	0	0
help	14 (505)	0	0	2 (72)	0	0
let	6 (216)	0	0	0	0	0
make	2 (72)	0	1 (36)	0	5 (181)	18 (650)

〈표 15〉 두산 동아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두산동아(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2 (76)	0	0
have	3 (114)	0	0	0	0	0
help	9 (341)	0	0	0	0	0
let	10 (378)	0	0	0	0	0
make	13 (492)	0	0	0	2 (76)	16 (606)

〈표 16〉 YBM 시사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YBM시사(신)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7)	1 (37)	0	0
have	2 (74)	1 (37)	1 (37)	0	0	0
help	5 (186)	0	0	0	0	0
let	15 (558)	0	0	0	0	0
make	4 (149)	0	1 (37)	0	1 (37)	8 (297)

〈표 17〉 천재 출판사 사역동사 비정형절 빈도수

천재출판사(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1 (45)	0	0	0
help	6 (272)	0	0	2 (91)	0	0
let	15 (679)	0	0	0	0	0
make	9 (408)				6 (272)	23(1042)

다음 표는 ICE-GB의 문어체에 나타나는 비정형절을 나타낸 것이다.

〈표 44〉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의 쓰임

	동사원형	과거분사	현재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7(17)	0	1(2)
have	2(5)	8(19)	0	1(2)	0	0
help	17(40)	0	0	10(24)	0	0
let	72(170)	0	0	0	0	1(2)
make	27(64)	0	0	0	5(12)	40(94)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절을 살펴보면, get은 to 부정사가 비정형절로서 자주 나타났다. have는 과거분사, help는 동사의 원형, let 역시 동사의 원형, make는 형용사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ICE-GB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 교과서는 능률출판사와 천재출판사였다. 천재 출판사의 본문에서는 get이 사역동사로 출현하지 않았지만 get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ICE-GB의 결과와 같았다.

다음 표는 교과서 듣기 대본에 나타난 비정형절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은 백만 단어로 환산한 숫자이다.

〈표 28〉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금성(권)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0	0	0
have	0	0	0	0	0	0
help	15 (469)	0	0	2 (62)	0	0
let	27 (844)	0	0	0	0	0
make	13 (406)	0	0	0	0	9 (281)

<표 29>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능률출판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45)	0	0	0
have	1 (45)	0	0	0	0	0
help	12 (540)	0	0	1 (45)	0	0
let	11 (495)	0	0	0	0	0
make	12 (540)	0	2 (90)	0	0	7 (315)

<표 30>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두산동아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1 (42)	0	0	0	0
have	0	0	0	0	0	0
help	8 (334)	0	0	0	0	0
let	6 (251)	0	0	0	0	0
make	4 (167)	0	0	0	1 (42)	4 (167)

<표 31>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시사출판사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0	1 (50)	0	0
have	3 (150)	0	0	0	0	0
help	0	0	0	0	0	0
let	11 (552)	0	0	0	0	0
make	6 (301)	0	1 (50)	0	0	5 (251)

<표 32>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비정형절 빈도수

천재출판사(김)						
	동사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명사	형용사
get	0	0	1 (38)	0	0	0
have	0	0	0	0	0	0
help	13 (495)	0	0	1 (38)	0	0
let	31(1180)	0	0	0	0	0
make	10(381)	0	0	0	0	17 (648)

다음은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질의 빈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43>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질의 쓰임

	원형	현재분사	과거분사	to 부정사	형용사	명사
get	1 (2)	16 (25)	23 (36)	29 (45)	7 (11)	0
have	5 (8)	15 (24)	28 (44)	1 (2)	2 (3)	0
help	11 (17)	1 (2)	0	14 (22)	0	0
let	84 (132)	0	0	0	0	0
make	64 (100)	0	0	0	61(96)	0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질의 형태를 살펴보면, get의 경우는 to 부정사가 가장 많이 쓰였고, have는 과거분사가 많이 쓰였다. help는 to 부정사가 동사원형보다 5개 정도 더 나타나면서 그 빈도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않았다. let은 원형의 형태만 쓰였고, make는 형용사와 동사원형과 4개 차이로 동사원형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ICE-GB 구어체에 나온 빈도수를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를 살펴보면 get의 비정형질로 to 부정사가 많이 쓰인 시사출판사를 뽑을 수 있다. have의 경우는 과거분사가 비정형질로 나오는 교과서가 없었다. let은 모든 출판사가 동사의 원형을 비정형질로 나타내고 있고, make는 천재 출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출판사에서 ICE-GB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사 출판사가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비정형질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다음은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를 비교한 표이다. 다음 표는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나타내고 ICE-GB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표 18〉 금성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0	0
have	0	1 (36)	0	1 (36)
help	3 (109)	0	6 (218)	2 (73)
let	3 (109)	5(182)	1 (36)	0
make	0	3(109)	8 (291)	15 (545)

〈표 19〉 능률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4 (144)	0	0	1 (36)
have	2 (72)	5 (181)	0	0
help	2 (72)	0	13 (469)	1 (36)
let	2 (72)	3 (108)	1 (36)	0
make	1 (36)	9 (325)	9 (325)	10 (361)

〈표 20〉 두산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38)	0	1 (38)	0
have	0	0	1 (38)	2 (76)
help	2 (76)	0	5 (189)	2 (76)
let	6 (227)	2 (76)	2 (76)	0
make	5 (189)	4 (151)	12 (454)	10 (378)

〈표 21〉 YBM 시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37)	0	0	1 (37)
have	2 (74)	2 (74)	0	0
help	1 (37)	1 (37)	3 (112)	0
let	13 (483)	2 (74)	0	0
make	3 (112)	2 (74)	1 (37)	8 (297)

〈표 22〉 천재 출판사 본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0	0
have	0	1 (45)	0	0
help	3 (135)	1 (45)	4 (181)	0
let	12 (544)	1 (45)	1 (45)	1 (45)
make	5 (226)	7 (317)	7 (317)	18 (815)

〈표 46〉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3 (7)	3 (7)	1 (2)	0
have	6 (14)	4 (9)	2 (5)	2 (5)
help	5 (12)	0	20 (47)	2 (5)
let	64 (151)	3 (7)	4 (9)	2 (5)
make	14 (33)	9 (21)	23 (54)	31 (73)

ICE-GB의 문어체에서 get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과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같은 빈도수로 쓰였음을 알 수 다. 이를 반영하는 교과서는 능률출판사, 두산출판사, 시사출판사였다. ICE-GB에 나타나지 않은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시사출판사에서 출현함을 알 수 있다.

have는 ICE-GB에서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이 쓰였고 그 외의 구문도 나타났다. 교과서에서는 시사출판사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help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가 ICE-GB에 많이 나타났고, 모든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ICE-GB에서 let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는데, 이를 반영하는 교과서는 두산출판사, 시사출판사, 천재출판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make는 ICE-GB에서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이 쓰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교과서는 두산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

판사들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두산 출판사의 경우 make 구문에서 무생물 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교과서는 YBM 시사 출판사였다.

다음은 교과서 듣기 대본에서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33> 금성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0	0
have	0	0	0	0
help	11 (344)	0	5 (156)	1 (31)
let	26 (812)	1 (31)	0	0
make	3 (94)	1 (31)	15 (469)	3 (94)

<표 34> 능률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45)	0	0	0
have	0	1 (45)	0	0
help	9 (405)	0	4 (180)	0
let	11 (495)	0	0	0
make	3 (135)	7 (315)	8 (360)	3 (135)

<표 35> 두산 동아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0	1 (42)	0
have	0	0	0	0
help	6 (251)	0	2 (84)	0
let	6 (251)	0	0	0
make	3 (125)	0	5 (209)	1 (42)

〈표 36〉 YBM 시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1 (50)	0	0	0
have	3 (150)	0	0	0
help	0	0	0	0
let	11 (552)	0	0	0
make	2 (100)	0	9 (451)	1 (50)

〈표 37〉 천재 출판사 듣기 대본 사역동사의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생물 목적어	무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get	0	1 (38)	0	0
have	0	0	0	0
help	8 (305)	0	6 (228)	0
let	30 (1143)	0	1 (38)	0
make	8 (305)	2 (76)	13 (495)	4 (152)

다음은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표이다.

〈표 45〉 ICE-GB 구어체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 관계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생물주어-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생 물목적어	무생물주어-무 생물목적어
get	35 (55)	29 (45)	8 (13)	5 (8)
have	17 (27)	23 (36)	2 (3)	6 (9)
help	5 (8)	0	18 (28)	3 (5)
let	75 (118)	6 (9)	2 (3)	1 (2)
make	20 (31)	29 (45)	44 (69)	32 (50)

ICE-GB구어체에서 get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갖는 교과서는 능률출판사와 시사출판사였다. have의 경우는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 능률출판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help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갖는 교과서는 없었다. let은 ICE-GB에서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 make
의 경우 ICE-GB 문어체와는 달리 구어체에서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
문이 가장 많이 쓰였는데, 모든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5종에 나타나는 사역동사와 ICE-GB에 나타나는 사역동사를 비교하였다. 사역 동사는 Comrie(1985)의 분류에 따르면 분석적 사역에 해당하는 get, have, help, let, make를 분석하였다. 5종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동사의 빈도수, 비정형질의 형태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조사하고 ICE-GB와 비교하였다. 교과서는 본문과 듣기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ICE-GB 역시 문어체와 구어체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교과서의 본문과 ICE-GB의 문어체 자료와 비교하고, 교과서 듣기 대본과 ICE-GB의 구어체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교과서 본문에서 사역동사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천재 출판사였다. 듣기 대본에서 역시 천재 출판사가 가장 많은 사역동사의 빈도수를 나타냈다. ICE-GB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 중에서 구어체에서의 사역동사의 쓰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반영하는 교과서는 금성 출판사와 천재 출판사였다. 이 두 출판사는 교과서 본문에 비하여 듣기 대본에서 사역동사의 쓰임이 더 빈번하였다.

비정형질의 경우 ICE-GB 문어체에서의 결과와 같은 출판사는 능률 출판사와 천재 출판사로 나타났다. ICE-GB 구어체의 비정형질과 결과가 같은 출판사는 YBM 시사 출판사였다.

ICE-GB의 문어체에서 get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과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같은 빈도수로 쓰였고, have는 ICE-GB에서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이 쓰였다. help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let은 생

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다. make는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이 쓰였다.

ICE-GB 문어체에 나타난 모든 사역 동사의 주어, 목적어 결과를 반영하는 교과서는 없었다. 동사별로 ICE-GB 문어체의 결과를 반영하는 교과서는 get은 능률 출판사, 두산동아 출판사, YBM 시사 출판사이다. have는 시사 출판사였고, help는 모든 교과서에서 ICE-GB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let은 두산동아 출판사, YBM 시사 출판사, 천재출판사로 나타났다. make는 두산동아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에 같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make는 ICE-GB에서 무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많이 쓰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교과서는 두산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판사들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두산 출판사의 경우 make 구문에서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ICE-GB구어체에서 get은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 have의 경우는 생물주어-무생물목적어 구문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 help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 let은 ICE-GB에서 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았다. make는 무생물주어-생물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이 쓰였다. 사역 동사별로 ICE-GB 구어체의 결과를 반영하는 동사를 살펴보면 get은 능률 출판사와 YBM 시사 출판사였다. have는 능률 출판사가 같은 결과가 나왔다. help의 경우 해당하는 교과서는 없었다. let과 make는 ICE-GB와 모든 교과서 듣기 대본에서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ICE-GB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주어와 목적어 관계는 get과 help, let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 have, make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ICE-GB 구어체에서 have는 생물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문어체에서는 생물주어-생

물 목적어 구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make는 구어체에서는 생물주어-생물 목적어 구문이, 문어체에서는 무생물 주어-무생물 목적어 구문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영옥(2001)의 연구에서 make는 무생물 주어가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ICE-GB의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어체와 구어체에서의 목적어의 쓰임은 달랐지만, 두 자료 모두 무생물 주어가 가장 빈번히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CE-GB의 결과 help 역시 무생물 주어를 생물 주어보다 더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ke와 help를 이용한 구문을 만들 때, 무생물 주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결과와 ICE-GB에서 나타난 사역동사의 빈도수, 비정형절의 형태, 주어와 목적어 관계를 살펴보았다. ICE-GB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코퍼스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미국 영어로 된 코퍼스로 연구하였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힌다. 조사 대상 별로 ICE-GB와 교과서의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모두를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 동사 중 get과 have는 비교를 하기에 많은 빈도수가 나온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ICE-GB에서는 get과 have가 사역동사로서 빈번히 사용된 점을 고려한다면 교과서에 get과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는 예를 더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정형절의 경우, ICE-GB의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사역동사가 하나의 비정형절을 규칙으로 갖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절을 제시하여 실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판사를 선택한다. 학습자들이 영어 교과서를 통하여 주로 수업을 받고, 문법 규칙과 쓰임을 익힌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교과서는 실제 생활에서 빈번히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현장에서 사역동사의 비정형질이 다양할 수 있고,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에서 동사별로 더 선호하는 관계가 있음을 지도하도록 해야겠다. 학습자들에게 사역동사에 관한 일괄적인 규칙을 학습하는 것 보다 학습자들에게 실제 사역동사의 쓰임을 알려주는 것이 유의미한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구의숙. (2004). 대화와 과학소설에 나타난 사역동사 get과 have의 어휘패턴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 김광현. (2001). 영어 사역구문의 도상적 분석. *새한영어영문학회*, (5) 3-8.
- 이기동. (1988). 언어의 도상성: 영어 동사+전치사+목적어 구문을 중심으로. *연세논총*, (24) 29-50.
- 이영옥. (2001). 무생물 주어 타동사구문의 영한번역. *한국번역학회*, (2) 53-76.
- 장은숙, 윤웅진. (1997). 영어 사역화 동사의 의미자질. *새한영어영문학회*, (36) 165-188.
- 조혜진. (2007).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역 구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용덕. (1997). 사역 동사의 구문연구. *경주전문대학 논문집*, (12) 68-87.
- Borkin, Ann. (1984). *Problems in forms and function*.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mpany.
- Comrie, B. (1985). Causative verb formation and other verb-deriving morphology. In Timothy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309-348.
- Gaetanelle, Gilquin. (2003). Causative get and have. *Journal of English Linguistics*, 31, (2) 125-128.
- Haiman, J. (1980). The Iconicity of Grammar: Isomorphism and Motivation, *Language* 56, 515-540.
- Kemmer, Suzanne (2001). Causative Constructions and Cognitive Model: The English *Make* Causative,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Perspectives for the 21st Century, 803–32.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n analysis on causative verbs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and ICE-GB

Yang, Hyun Mi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 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s a master'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causative verbs both in high school English texts and the ICE-GB (the British component of the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 Every high school in South Korea teaches at least one English textbook. Considering this, the diversity of the causative verbs has a major impact on learners' acquisition.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age of causative verbs, relation of subjects and objects in causative verbs and the usage of infinitive clauses. They are included in the main English texts which the learners study in high school, compared with the ICE-GB.

The main texts and listening scripts in the high school English texts will be analyzed in order to find the usage, the relations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and the infinitive clauses in causative verbs between spoken and written English. The data from the ICE-GB will then be divided into spoken and written categories and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The causative verbs, “get,” “have,” “help,” “let” and “make” will be focused on here. The main points that will be studied are the frequency, the forms of infinitive clauses and the relation between subjects and objects for these verb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English learners in high school acquire the rules for using causative verbs, and practical suggestions will be made to English teachers about the uses of causative verbs.